

됐음을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를 1위 미곡, 2위 쇠고기, 3위 대두, 4위 돼지고기, 5위 사과, 6위 닭고기, 9위 낙농품, 18위 천연꿀로 내다봤다.

이어 이준원 농림부 구조정책과장은 농업분야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축산분야의 경우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우의 경우 지역별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를 꾀하고, 돼지는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닭은 질병관리 강화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낙농은 수급안정 강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 및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反 FTA’ 국민 공감 형성 끝까지 심기일전



최 규 철 사무총장

한 미FTA 추진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과 영세 제조업체와 농축산업계, 영화업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양봉농가들도 FTA저지를 위해 힘을 보탤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추진하던 협상, 이제 국민 앞에 맨몸으로 드러나게 됐다.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큼 절실한 바람이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다시한번 심기일전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 주기를 바란다.

- 2006. 8. 23 / 축산신문 -